



새해부터
도미노 인상
소비자 한숨 커져
니



Life

CDMO확장 등
미국 활동
노력은 제약바이오
L2



진화한 '휴먼테크'에 비행차까지... 꿈꿨던 미래세계 열린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오는 7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5'에서 미래 기술을 공개한다.

다만 올해는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국내 기업들이 대거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중국과 일본 업체들이 부스를 차리고 최신 모델과 기술을 선보인다. 이들 기업은 플라잉카와 수소 도시 등을 공개하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변화를 보여줄 전망이다.

우선 국내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차그룹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제로원이 참가한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CES에서 '비온드 앤 모어'를 주제로 사람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휴먼 테크'로 색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세계적인 광학기업 독일 자이스(ZEISS)와 공동 개발 중인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 ▲사용자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휴먼 센트릭 인테리어 라이팅 시스템' ▲운전자의 뇌파 정보를 분석해 졸음 운전 등 부주의 상태를 실시간 체크하는 '뇌파 기반 운전자 부주의 케어 시스템' 등 총 3가지 휴먼 테크 기술을 일반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CES에 참가한 제로원은 현대차그룹이 투자 및 협업



현대모비스 CES2025 전시부스 조감도.



도요타 미래 스마트시티 '우븐시티'.

/도요타

오는 7일 美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 미래 모빌리티 최신 기술 한곳에

현대모비스, 교감·소통 '휴먼테크' 제로원, 스타트업 10개사 전시 지원
도요타, 미래형 스마트시티 공개 중, 4억대 양산형 '플라잉카' 선보

중인 스타트업 10개사의 기술 전시를 지원한다.

참여스타트업 명단은 딥인사이트(AI 기반 3D센싱 카메라 모듈화 솔루션), 나니아랩스(3D 엔지니어링 데이터 및 AI솔루션), 테라클(PET해중합기반 재생 TPA 및 EG 소재생산), 캡처6(탄소 직접포집기술), 테슬로(다관절 로봇 그리퍼), 매이드(실리콘카바이드 소재 3D 프린트), 쓰리아이솔루션(산업용 중성자 성분 분석기), 스마트 타이어 컴퍼니(형상기억합금 기반 비공압 타이어), 콤테크놀로지스(자율주행차량, 로봇 및 자동화 위험 보험 기술), 인베랩(생태계 교란식물 방제 통합 솔루션) 등이다.

일본에서는 도요타와 혼다가 참가해 기술력을 뽐낸다.

지난 2020년 이후 5년만에 CES에 참

가하는 도요타는 미래형 스마트 시티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미래형 스마트 시티인 '우븐 시티' 프로젝트를 주제로 발효를 예고한 만큼 수소 경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븐 시티는 도요타가 2020년 CES에서 공개하며 주목받았다. 우븐 시티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퍼스널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시티다. 자율주행차와 첨단 모빌리티 솔루션도 대거 공개할 전망이다.

혼다는 이번 CES 2025에서 '혼다 제로(Honda Zero)' 시리즈의 두가지 프로토타입을 공개할 예정이다. 혼다 제로 시리즈는 ▲얇고 ▲가볍고 ▲지능적인을 모토로 한 새로운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됐다.

중국 '모듈식 비행 자동차'(플라잉카)를 선보인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핑의 자회사 샤오핑 에어로 HT는 CES 2025에서 플라잉카 '랜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LAC)을 공개할 예정이다. 5명의 승객 수송 능력과 완충 시 최대 1000km의 주행거리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LAC의 양산은 오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다. 가격은 약 200만 위안(약 4억원)이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지커도 나선다. 지커는 이번 CES 2025에서 슈팅 브레이크 스타일의 고성능 전기차 지커 001 FR, 4인승 대형 다목적차량(MPV)인 지커 009 그랜드, 도시 주행에 최적화된 콤팩트 MPV 지커 믹스 등 3가지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젠슨 황·리사 수... AI 반도체 거물 '총출동'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 대표 한자리에
젠슨황, 기조연설... 신제품 공개 기대
리사 수, 기자간담회서 '라데온' 발표
SK하이닉스, 5세대 HBM 16단 공개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가전쇼인 'CES 2025'가 미래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들의 전쟁터가 됐다. AI 기술 빅뱅 이후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AI 반도체를 둘러싸고 전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총출동한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7일부터 10(이하 현지시간)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 참가하고 젠슨 황, 리사 수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이 직접 기조발언에 나선다.

반도체 기업 수장들의 기조연설 중 가장 큰 이목을 끄는 인물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리사 수 AMD CEO다.

AI 생태계 최상위에 위치한 엔비디아

의 수장 젠슨 황은 6일 오후 6시 30분 시작하는 CES 2025 기조연설에 참가한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매년 CES에서 차세대 게이밍 GPU인 지포스 RTX 신제품을 공개한 만큼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점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히 여겨지는 사양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아키텍처 '블랙웰(Blackwell, B100·B200)'을 탑재한 지포스 RTX50 시리즈다.

리사 수 AMD CEO는 젠슨 황보다 6시간 이상 앞선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외 행보를 갖는다. 간담회에서 리사 수는 엔비디아 지포스 시리즈의 맞수격인 '라데온(REDEON)'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CPU 신제품인 라이젠(RYZEN) 차세대 모델의 공개 여부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일각에서는 파트너십 발표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엔비디아와 AMD 두 기업의 대표가

한날 공식성상에 서면서 외신과 업계 관계자들은 AI 가속기를 둘러싼 두 기업의 경쟁구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AI 반도체가 반도체 시장의 핵이 된 만큼 우리 기업들도 AI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상품을 쏟아낼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광노정 대표이사 CEO 등 C-레벨 경영진이 대거 참여할 예정으로 이번 전시에서 작년 11월에 개발을 공식화한 5세대 HBM(HBM3E) 16단 제품 샘플을 이번 전시에 선보인다. 어드밴스드 MR-MUF 공정을 적용해 업계 최고층인 16단을 구현하면서도 칩의 휨 현상을 제어하고 방열 성능을 극대화했다.

딥엑스는 델과 HP 등 글로벌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 기업들과 협력한 고성능 AI 솔루션을 선보이고 양산 검증성과 함께 다양한 응용 시스템 간 연동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삼성전자, 이클립사 오디오 탑재 TV 공개

CES2025서 3D 오디오 기술 선포
"IAMF 기술로 新오디오 표준 정립"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지시간 7일부터 열리는 CES 2025에서 구글과 공동 개발한 3D 오디오 기술 '이클립사 오디오(Eclipsa Audio)'를 탑재한 TV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이클립사 오디오는 IAMF(Immersive Audio Model and Formats)기술을 기반으로 소리의 위치와 강도, 공간 반사음 등의 음향 데이터를 디바이스 환경에 맞게 최적화해 3차원 공간에 있는 듯한 몰입감 있는 사운드 경험을 구현한다.

삼성전자는 2025년형 크리스탈 UHD 모델부터 Neo QLED 8K까지 전 라인업에 IAMF 기술을 공식 지원한다.

삼성전자와 구글은 TV 전용 유튜브 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IAMF 기술이



삼성전자 Neo QLED 8K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적용된 3D 오디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손태용 부사장은 "CES 2025에서 3D 오디오 기술을 탑재한 Neo QLED TV를 통해 차세대 몰입형 오디오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IAMF 기술을 통해 업계에 새로운 오디오 표준을 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서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최신식 구장에 등지 트는 한화 이글스... "가을 야구 가자"
▲김혜성 다저스행... 5번째 빅리거 배출한 키움 "자부심 느낀다" /사진 뉴스스

▲프로축구 FC서울, 중앙 수비수 이한도 영입... 새 시즌 전력 보강
▲'佛슈퍼컵 2연패 도전' 이강인, 모나코 꺾고 새해 첫 우승 정조준

▲프로배구 KB손보, 레오나르도 감독 선임... 쵸쿼터도 교체
▲임성재, PGA 개막전 3R에서 11언더파... 단독 4위 도약